



미 증시, 양호한 GDP, 기업실적 우려로 하락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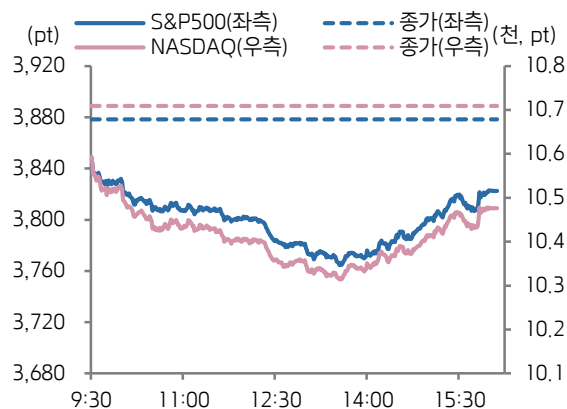
22일(목)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성장률 결과에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 부각, 기업실적 기대감 후퇴되며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나, 낙폭과대 인식속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(다우 -1.05%, S&P500 -1.45%, 나스닥 -2.18%)

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.6 만건(22.2 만건, 전주 21.4 만건)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전주대비로는 증가. 2 주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67 만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.

3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3.2%(예상 2.9%) 기록, 1 분기 -1.6%, 2 분기 -0.6%의 역성장을 되돌리며 상승. 개인소비는 2 분기 2.0%에서 2.3%로 증가했으며, 이는 고물가에도 소비와 기업 수요가 견조함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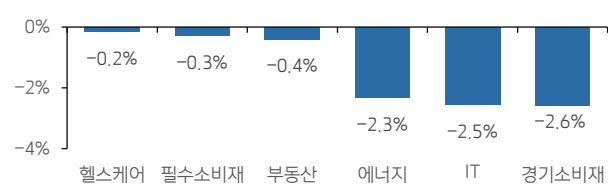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(-0.2%), 필수소비재(-0.3%), 부동산(-0.4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, 경기소비재(-2.6%), IT(-2.5%), 에너지(-2.3%)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. 애플(-2.38%), 알파벳(-2.03%), 아마존(-3.43%), 메타(-2.2%) 등 시총상위주들은 하루만에 하락 전환. 특히 테슬라(-8.88%)는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모델 3 와 모델 Y 의 판매가를 낮추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보도에 실적 우려 부각되며 5 거래일 연속 하락. 전일 마이크론(-3.44%)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3 년까지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이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전체 직원의 10%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것으로 언급하며 하락, 엔비디아(-7.04%), AMD(-5.64%), AMAT(-7.84%) 등 반도체주 동반하락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%대 급락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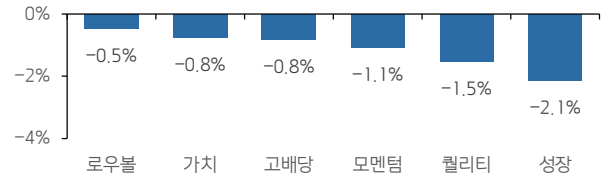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3,822.39	-1.45%	USD/KRW	1,276.44	-0.71%
NASDAQ	10,476.12	-2.18%	달러 지수	104.41	+0.24%
다우	33,027.49	-1.05%	EUR/USD	1.06	+0.02%
VIX	21.97	+9.47%	USD/CNH	7.01	+0.01%
러셀 2000	1,754.09	-1.29%	USD/JPY	132.35	+0%
필라. 반도체	2,533.33	-4.2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3,421.10	-1.05%	국고채 3년	3.570	-6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470	-9bp
Eurostoxx50	3,823.29	-1.26%	미국 국채 2년	4.271	+5.9bp
MSCI 전세계 지수	610.14	+1.19%	미국 국채 10년	3.679	+1.7bp
MSCI DM 지수	2,626.92	+1.31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952.98	+0.2%	WTI	77.49	-1.02%
MSCI 한국 ETF	56.90	-0.73%	금	1795.3	-1.6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7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89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1.38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90.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엔화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인한 원/달러 환율 1,270 원대 안착 여부
2. 예상치 부합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및 대형주 주가 흐름
3. 거래대금 감소 및 모멘텀 부재에 따른 중소형주 순환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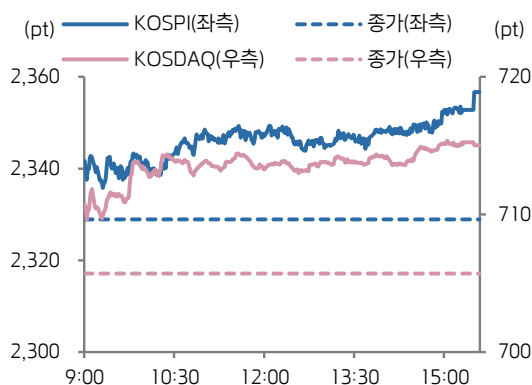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으로 반등했던 증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결과에 하루만에 급락세를 시현. 4 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서 기업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및 인력 감축 예고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급락.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22 일(목) 코스피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반등한 미 증시에 힘입어 시총상위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 (KOSPI +1.19%, KOSDAQ +1.32%). 특히 어제 항공, 해운 등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중국이 1 월 항공 노선을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에 기인. 중국 항공사들이 하루평균 승객 수송량을 2019 년 70% 수준까지 증편할 계획을 밝히며 국내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추가 증편 기대감 부각. 즉 리오프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효하므로, 연말까지 단기 모멘텀의 부재로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순환매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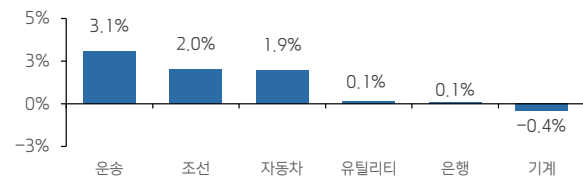
한편 금투세 시행은 2 년 유예되었지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.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으로 개인들의 거래대금 역시 급감. 28 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, 27 일에 대주주요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. 추가적으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역시 반등에 성공했지만, 어제 시총상위주 중 LG 에너지솔루션은 1%대 하락세 시현. 테슬라 관련 매출 감소 불안에 더해서, 1 월에 3%에 달하는 오버행(잠재적 물량 부담) 이슈도 존재하는 상황. 물론 관련 물량이 전부 나눌지는 미지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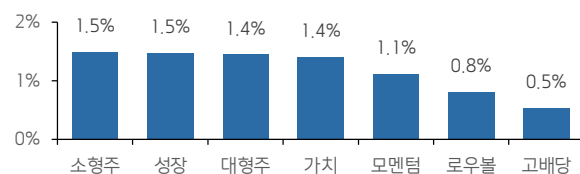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E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